

우마는 왜 털이 없을까요?



✎ Basilio Gimo, David Ker
👤 Carol Liddiment
📄 Michelle Kim
2
🗣️ 한국어



Global Storybooks

globalstorybooks.ne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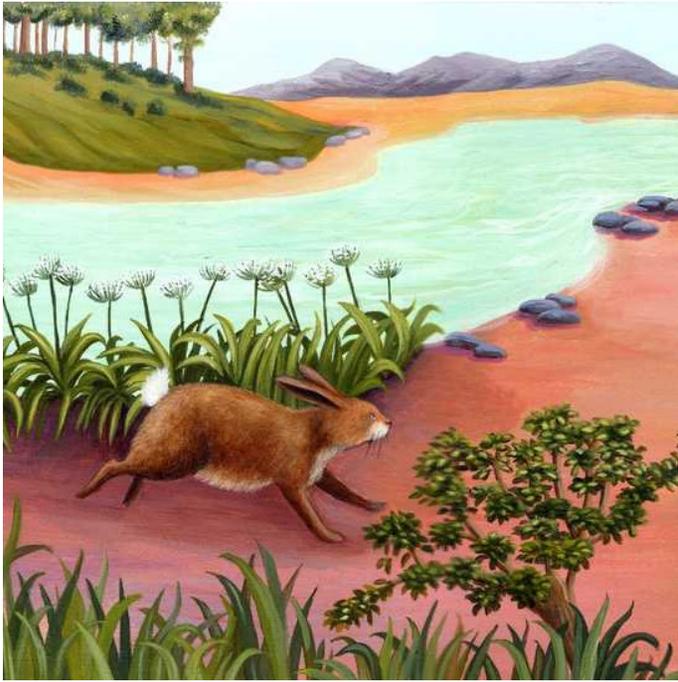
우마는 왜 털이 없을까요?

✎ Basilio Gimo, David Ker
👤 Carol Liddiment
📄 Michelle Kim



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
[Attribution 3.0 International License](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3.0).
<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3.0>





어느 날, 한 토끼가 강가를 걷고 있었어요.

그 강가에는 하마도 있었는데, 하마
는 사채를 하며 사쾌하고 푸름 풀을
먹고 있었어요.





하마는 토끼가 자기 옆에 있다는것을 모르고 토끼의 발을 밟아 버렸어요. 토끼는 비명을 질렀고 하마에게 소리 쳤어요, “야 이 하마야! 너 지금 내 발 밟고 있는거 안보여?”



토끼는 하마의 머리가 타서 좋았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마는 불이 두려워서 물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거래요.

하마는 토끼에게 사과했어요, “정말
 미안해, 친구야. 너를 못봤어. 제발 용
 서해줘!” 하지만 토끼는 하마의 말을
 듣지 않고 계속 소리쳤어요, “너 일부
 록 간간간 또 너도 안제간 또
 칸이 단학가야!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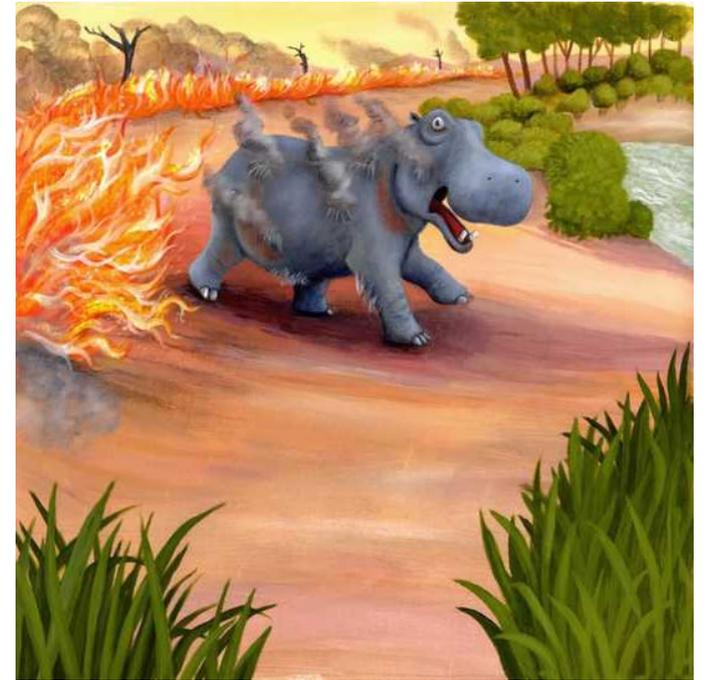


하마는 뽕뽕을 떠뜨렸고 뽕뽕이 뛰어
 갔어요. 하마의 모든 뽕뽕이 뽕에 타 버
 렸어요. 하마는 뽕뽕을 멈추지 못했
 어요, “내 뽕이 뽕에 다 타버렸어! 너
 가 내 뽕을 빼! 빼! 빼! 빼! 빼! 빼! 빼!
 다 사라졌어! 내 아들! 내 아들! 내 아들!
 뽕이!”





그러고는 토끼가 불에게 다가가 말했어요, “저 하마가 풀을 먹으려고 물에서 나오면 불로 태워줘. 재가 나 밟았어!” 불이 대답했어요, “그래! 내 친구 토끼야. 너가 하라는 대로 할게.”



잠시후, 하마는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풀을 먹고 있었는데, 갑자기 불이 났어요. 그 불꽃이 하마한테 붙어서 하마의 털을 태우기 시작했죠.